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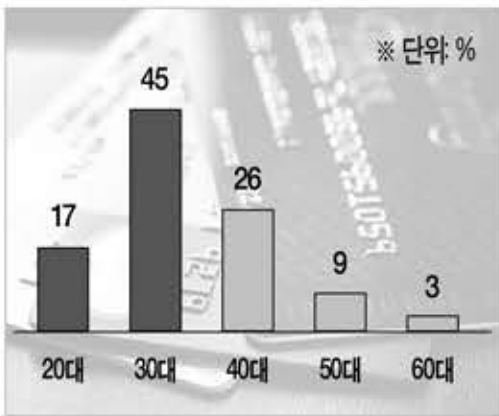
2030세대 프리미엄 카드 발급률 4050세대 추월

고소득자나 40·50세대의 전 유물로 통하던 연회비 15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률을 20·30세대가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20·30세대의 전체 프리미엄 카드 발급률은 62%로, 40·50세대의 발급률 35%보다 2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카드란 연회비가 1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카드로, 최근 카드사들이 골프클럽 이용권, 특급호텔 멤버십 등 프리미엄 카드 혜택을 늘리는 대신 연회비를 높이면서 연회비 200만원 카드까지 올해 초 출시됐다.

구체적으로 연회비가 최대 100만원인 현대 아메리칸



▲ 연령별 프리미엄 카드 발급률. 자료=현대카드

익스프레스 카드(현대 아멕스)의 경우 20·30 발급률이 52%로 40·50 발급률인 46%보다 높았다. 대한항공 현대카드의 20·30 발급률도 52%로 40·50 발급률(41%)보다 높았다. 특히 30대가 두 카드의 발급률에서 모두 41%를 기록해 전 세대 발급 비중 중 가장 높았다.

현대 아멕스 카드와 대한항공 현대카드는 모두 해외여행 특화 카드로서 전 세계 공항 라운

지 무료 이용, 높은 마일리지 적립, 호텔 1박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럭셔리 소비를 즐기는 20·30성향에 맞춘 혜택인 셈이다. 한 30대 고객은 "이왕 사용할 카드라면, 연회비를 더 내더라도 이를 상회하는 혜택을 제공받고 싶다."고 말했다.

상속·증여 재산 규모 급증



▲ 고령층 재산 급증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의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그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늘어) 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추세다.

2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속 재산만 놓고 보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상속·증여 재산이 급증하는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3,500조원(3,658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순자산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엔 1,172조원 수준이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1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일률적인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자산 추이를 보면 고령층이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전체 자산을 100%로 봤을 때 이 기간 20·30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에서 12%로 줄었다. 경제 주축인 40·50대 자산 비중은 57%에서 49%로 더 크게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1,172조원에서 3,600조원 넘게 불며 자산 비중이 28%에서 39%로 뛰었다.

부모 소득 높으면 자녀 소득도 높아

한국에서 부모 소득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근로소득 및 일자리 질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3일 '한국경제'는 이경우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양극화는 존재하는가?' 라는 KEDI 브리프를 인용해 2010~2019년 10년간 4년제 대졸자의 노동 시장 이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부모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4년제 대졸자 집단은 부모 소득 하위 20% 집단보다 첫 일자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최고 1.21배(2012년) 높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자리에서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최고 1.23배(2010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 소득 상·하



▲ 삼성전자 사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edaily.co.kr

위 20% 집단 간 월평균 소득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정규직 여부, 4대 보험 가입 등 경제적 단면에서 일자리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질은 2010년 기준 첫 일자리에 상위 20% 집단이 1.18배, 현재 일자리에 1.2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소득 상위 20% 집단에 속한 대졸자 자녀

가 부모 소득 하위 20% 집단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 부연구위원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양극화가 고등교육 단계 양극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석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예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Single	Couple
Income & Resources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